

무안군,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작업 추진



무안군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해 규산과 석회질비료 5,429톤을 공급하고 효율적인 공동살포 작업추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2억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 1주기

청계·현경면 회원농협 중심 공동살포단 구성 상반기 규산·하반기 석회·패화석 살포기로

로 농경지에 규산, 석회, 패화석을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따른 농작업 지원으로 공동살포를 위한 작업비 지원함으로써 전량 살포를 유도하고 있다.

금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지역은

청계면, 현경면으로 회원농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살포단이 상반기에는 규산, 하반기에는 석회와 패화석을 살포한다.

이들 작업단에는 20kg 포대당 800원씩, 총 2억1천7백만 원의 공동살포 작업비가 지원되며, 금년에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2,319톤, 석회질 1,110톤, 패화석 2,000톤이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살포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작업비를 지원하여 미살포로 인한 토양개량제 무단 방치사례를 근절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살포비용 국비지원으로 군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동 살포작업은 농지 소재지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외거주 농업인이나 장기 출타 농업인에 대해서 살포작업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살포 작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 임자도~서울 일일 생활권시대” 임자대교 개통으로 서울·광주·목포 간 금호고속 운행

국도의 최서남단 신안군 임자도에서 서울까지 일일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

신안군에 따르면 3월 중 임자대교(지도점임~임자진리) 개통을 앞두고, 지난 해 11월부터 전라남도 및 금호고속과 수차례 협의 끝에 신안 임자도~서울·광주·목포 간 금호고속(시외버스) 종점 연장 운행 협정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서울까지 One-stop으로 오고 갈 수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신안 임자도~서울·광주·목포 노

선은 각각 1일 2회씩 왕복운행을 하고, 요금은 서울노선 40,300원, 광주노선 13,300원, 목포노선 10,700원이며, 오는 3. 20.부터 임자대교(09:15)에서 서울행을 시작으로 방면별 운행 개시를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임자도~서울·광주·목포 간 금호고속 운행 개시가 되면 인적·물적 교류 활발은 물론 교통약자 등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개선으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이택주기자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다음달 30일까지 계약신청 고추·대파·양파 등 지원

영광군은 2021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고추, 대파,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약신청을 받는다.

시장가격 변동이 높은 고추, 대파, 양파의 재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한다.

계약신청은 주민등록이 영광군으로 되어있는 농가 중 경작농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대상품목당 1,000㎡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1품목 1기작으로 1,000㎡~10,000㎡로 면적이 한정된다.

군 관계자는 “고추, 대파, 양파의 미계약 필지는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이 제외되므로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재배계약을 체결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해 대상품목의 최저가격은 고추 14,149원/kg, 대파 448원/kg, 양파 419원/kg이었으며, 금년도 최저가격은 6월 중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취·창업 꿈꾸는 청년 역량강화 지원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 취·창업프로그램 진행

목포시가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는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통해 청년 등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개소한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차례 휴관하기도 했지만 관광유튜버 양성교육 등 12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3개의 취·창업 프로그램, 8개의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약 3,300여 명의 시민이 센터를 이용했다.

센터는 올해도 오는 11월까지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취·

창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해 취업과 창업 중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책’을 통한 취업 고민, 계획 나누기란 주제의 취업 소모임을 시작으로 입사지원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취업특강, 목포 원도심의 독립서점을 탐구하는 JOB&문화클래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인 판매방송에 대해 알아보는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진행한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청년·통합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http://www.mokpo.go.kr/youthcenter/community>)에서 각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 링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목포=박정주기자



go.kr/youthcenter/community)에서 각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 링크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목포=박정주기자

영암군, 고품질 조사료 생산 위한 경영체(법인) 교육

64곳 소통의 시간 가져

영암군은 지난 16일 영암축협 회의실에서 2021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조사료 경영체 64개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올해 변경된 시행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 업무 협조사항 등을 주제로 전국 최고의 고품질 조사료 생산지로 거듭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함께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축산농가의 폐비닐 방지 및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빈도 증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 폐비닐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적정 처리방

법 및 불법소각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군 관련부서(환경보전과)에서 참석하여 축산농가의 협조를 구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마을공동체 컨설팅·회계교육 지원 복잡한 회계절차 안내 등 사업 추진 단계 어려움 해소

함평군은 16일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선정된 10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후 컨설팅 및 회계교육을 진행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원은 주민 간 밀접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자원조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브랜드사업 등을 지원한다.

앞서 함평군은 백곡마을 등 사업에 선정된 10개 마을공동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보조금정산과 회계 절차를 안내해 주민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으



로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공동체 참여자는 “교육을 통해 정산과 회계절차에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다”며 “회계뿐만 아니라 향후 마을활동과 공모사업 구상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후 컨설팅 및 회계교육을 통해 공모사업 절차와 방법, 정확성 확보, 회계 경력별 맞춤 교육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